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Content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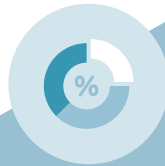
Part 01	제1장 재정통계 살펴보기	06
Part 02	제2장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26
Part 03	제3장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34
Part 04	제4장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50
Part 05	제5장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68
Part 06	별첨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84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ART 1



재정통계 살펴보기

PART 1

재정통계 살펴보기



1. 재정통계란 무엇인가요?

재정통계란 일반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듯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공공기관의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광의의 통합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국제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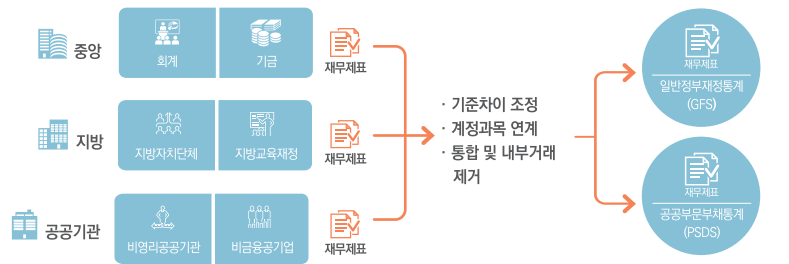
GFSM 2001
 GFSM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 재정통계 매뉴얼 -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

또한 부채에 대한 세부정보의 제공을 위해 국제기준인 PSDS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PSDS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 공공부문 부채통계 편제자 및 사용자를 위한 지침 -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총부채를 집계하고 세분화하여 부채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공

이러한 GFS와 PSDS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는 기관단위는 중앙정부 회계·기금, 지방 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재정, 공공기관이며 각각의 구체적인 기관단위는 '제2장 재정 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에서 자세히 논의됩니다.

그림 1-1 재정통계 보고서 산출체계



2. GFSM 2001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 GFSM은 정부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1974년에 IMF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총 3차례(1986년, 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GFSM 2001에서는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 주의 기준의 GFS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 2014에서는 SNA 2008 및 ESA 2010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SNA 2008

SNA 2008(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을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매뉴얼로 1953년 최초로 제정되어 3차례(1963, 1993, 2008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SA 2010

ESA 2010(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2010): 유럽 통계청에서 SNA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통계작성기준으로 1970년에 제정되어 2차례(1995, 2010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GFSM 2001은 GFSM 1986과 달리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재정 통계를 산출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를 작성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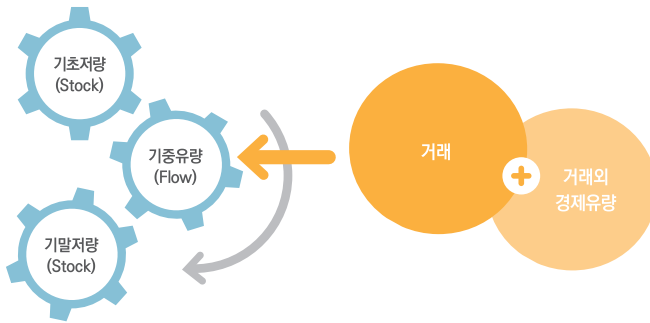
지배

지배(control)한다는 개념은 정부가 과반수이상의 의결권을 갖거나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는 등 기관의 일반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 GFS 체계는 기초 및 기말의 저량과 기중 유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운영에 따른 결과 및 영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GFS 체계에서 산출되는 재무제표에는 정부운영표,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거래외 경제유량표, 재정상태표가 있습니다.
- GFS 체계의 주요 재무제표는 기관의 재무제표와 같이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운영 및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3장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 1-2 GFS 체계



3.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는 무엇인가요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 부채에 관한 신뢰성 있고 시의적절한 통계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IMF,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연합하여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세부 작성지침인 PSDS를 제정하여 2012년에 발표 하였습니다.
- GFSM의 경우 재정운영과 재정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PSDS의 경우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부채와 금융자산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상품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이란 미래 특정 시점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 권리로 정의됩니다.

- PSDS는 발생주의를 작성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GFSM 2001에서 작성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을 작성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채통계는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와 순부채(Net Debt Liabilities)를 주요 지표로 하며,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 PSDS에서 상품, 만기, 통화, 이자율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산출된 부채 및 금융 자산 정보는 위험관리 목적의 다양한 재정분석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표 1-1 부채의 유형별 분류

분류	소분류	분류	소분류
상품 유형별	특별인출권	표시 통화별	자국 통화 표시
	현금 및 예금		외화 표시
	채무증권	이자율 유형별	고정이자율
	융자		변동이자율
	보험·연금·표준화보증		국내 채권자
기타미지급금	거주지별	국외 채권자	
만기별	원/잔존 만기별	비방향목	우발부채
			단기
	장기		



4. GFS와 PSDS는 누가 작성하나요?



- GFSM 2001 및 PSDS에 따른 연차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재정통계 발표와 IMF 및 OECD 등 국제기구 제출은 기획재정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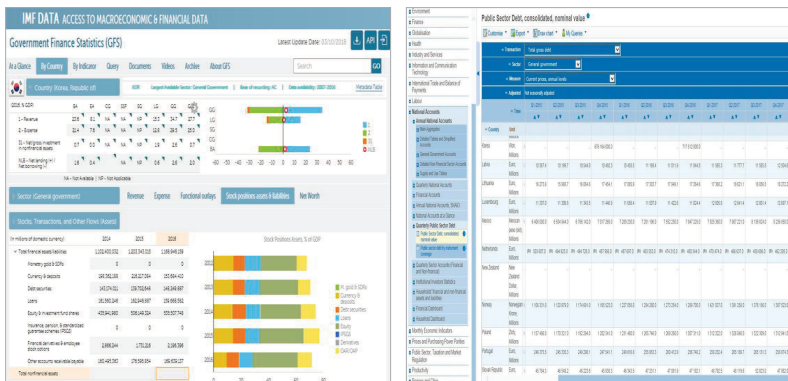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발표 및 공식

- GFS는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93개 나라가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IMF에 제출되어 IMF GFS Year Book과 IMF DATA에 각각 공시되고 있습니다.
- PSDS는 매년 OECD에 제출되어, OECD Statistics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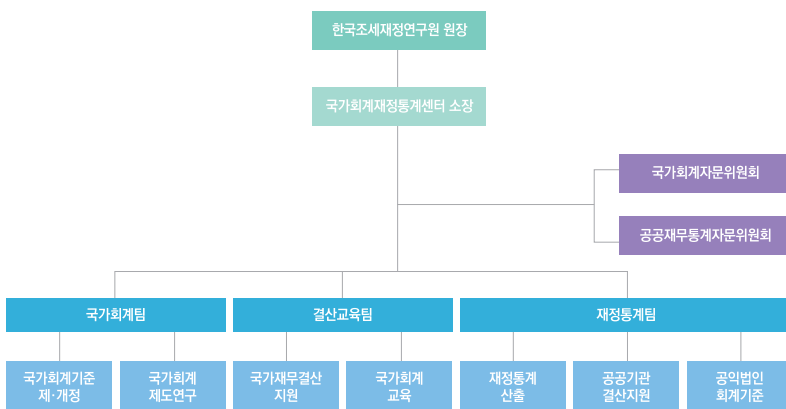
그림 1-3 GFS 및 PSDS 공시현황



(1)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법」제11조에 근거하여 국내의 국가회계 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0년 7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국가회계기준센터로 출범하였으며, 2014년 1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기능이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은 센터소장 및 3개 팀(국가회계팀, 결산교육팀, 재정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회계팀은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연구업무, 결산교육팀은 국가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국가회계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재정통계팀은 국제기준(GFSM 2001 및 PSDS 등)에 따른 재정통계 산출 및 연구,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결산 지원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1-4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조직도





(2)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재정통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재정통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됩니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이 맡고 정부위원은 재정관리국장, 예산총괄심의관, 공공정책국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통계청 경제통계국장,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민간위원은 재정통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에서는 공공부문의 분류나 원가보상을 산정 등 재정통계 산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있습니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회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회계자문위원회와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각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 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 5급 이상 공무원, 회계 학계와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회계학전공 교수 및 공인회계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소장이 추천 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위촉합니다.
- 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자문활동과 기타 업무수행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5.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경과를 알고 싶어요



-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GFSM 1974기준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하여 IMF 직후인 1999년부터는 GFSM 1986에 따라 작성된 현금주의 재정통계를 매년 IMF에 제출해왔습니다.
- 한편,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2년간의 시범 적용 기간을 거친 후,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11 회계연도부터 GFSM 2001로 재정통계를 전면 개편하여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였고,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로 작성범위를 확대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2012 회계연도부터 PSDS에 따라 공공부문의 부채통계를 산출하여 2014년에 처음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림 1-5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도입경과

시 기	국제통계지침	시 기	우리나라 재정통계
1974	GFSM1974 제정	1979	IMF의 권고에 따라 GFSM 1974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 및 제출
1986	GFSM1986 (1차 개정)		IMF 직후 GFSM 1986(현금주의)에 따라 재정통계 작성 및 제출
2001	GFSM2001 (2차 개정) 발생주의 적용	2012	재정통계 개편에 따라 GFSM 2001(발생주의) 기준의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산출
2012	PSDS 제정 (공공부문/ 채무상환)	2014	PSDS에 따라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및 OECD 제출 GFSM 2001에 따라 '12회계연도 일반 정부 재정수지 작성 및 IMF 제출
2015		GFSM2014 (3차 개정)	

(1) 우리나라의 GFSM 2001 기준의 재정통계 개편은 어떻게 이루어 졌나요?

- 현금주의 기준인 GFSM 1986에서 발생주의 기준인 GFSM 2001로의 전환은 재정통계의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 2004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기획단의 설치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재정시스템 구축작업이 진행되는 한편, 2006년 정부의 재정규모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재정통계의 국제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기준인 GFSM 2001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재정통계 개편작업은 2008년 민관합동 작업반을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청회, 재정통계자문위원회 및 실무TF 등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GFSM 2001을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2년 12월 마침내 GFSM 2001에 따른 20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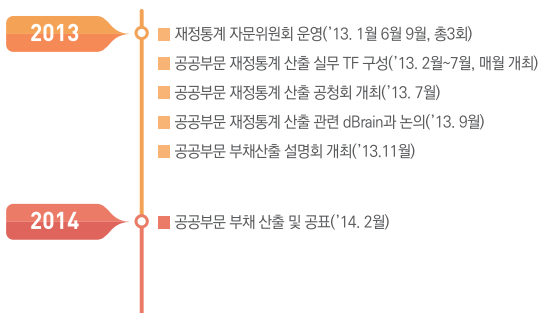
표 1-2 일반정부 재정통계 산출 추진 과정



(2) 공공부문 부채통계(PSDS)는 어떻게 도입되었나요?

- 2012년 WB, OECD, IMF 등이 연합하여 일반정부에서 확대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부채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지침인 PSDS를 발표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의 재정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부채 통계를 산출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또한 일반정부 범위에 LH, 한전 등 주요 공기업이 제외되어 국가부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재정통계자문위원회와 실무 TF를 구성하고 공공부문포괄범위, 총당 부채 및 우발부채, 내부거래 제거 등 실무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청회와 공공부문 부채 산출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4년 2월 최초로 PSDS에 따른 20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게 됩니다.

표 1-3 공공부문 부채통계 산출 추진 과정



6.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1) 정부 전체의 재정을 알 수 있어요

-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두 발생주의 기준의 재무제표를 산출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각각 작성된 재무제표 및 결산보고서는 국회 및 지방의회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각각 작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를 통해 정부부문 전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240개가 넘는 자치단체별로 개별 재무제표만 작성중입니다.
- 하지만 GFSM 2001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일반정부의 재정을 하나의 보고서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원을 지원하는 정책 등 정부내부의 재정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정부 간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1-6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정부전체의 재정을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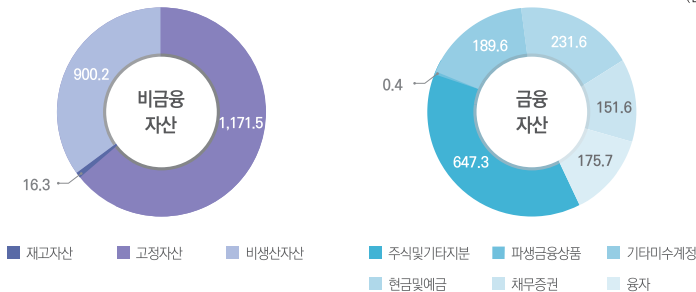


(2) 정부의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GFS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고, GFS 체계를 통해 모든 자산과 부채가 누락 없이 재정통계 보고서에 포함되게 됩니다.
- 그동안 현금주의 재정통계가 정부의 자산을 별도로 집계하지 못함에 따라 자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힘들었으나, GFSM 2001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재정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부의 자산을 모두 파악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GFSM 2001 기준에 따른 자산분류체계에 따라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보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취득과 처분 등의 거래를 통한 증감내역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일반정부의 자산은 3,484.2조원으로 비금융자산 2,088.0조원, 금융자산 1,396.2조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정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제공해줍니다.

그림 1-7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정부의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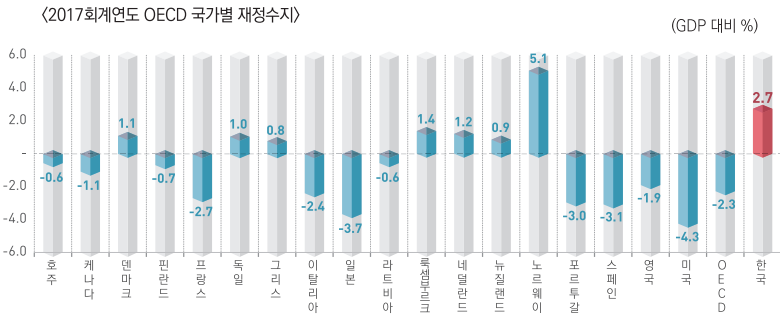
(단위: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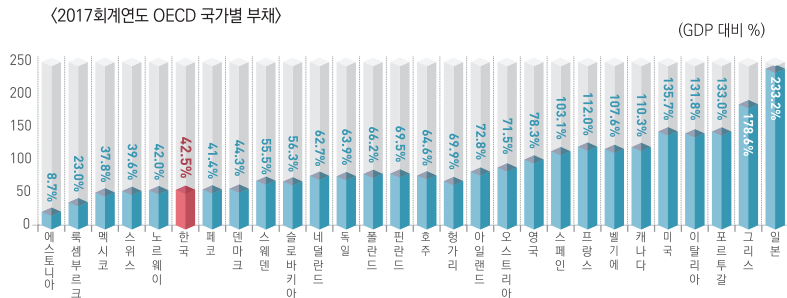
(3) 국제비교가 가능해졌어요

- 과거 현금주의 GFS는 그 포괄범위나 작성방법에서 발생주의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의 GFS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국제기준을 채택하여 GFS를 작성함으로써 동일한 국제기준을 적용한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뢰성 있는 GFS 산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 및 국가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특히 GDP 대비 재정수지나 부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회계연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2.7%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채는 GDP 대비 42.5%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1-8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국제비교가 가능해졌어요



출처: OECD.stat.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출처: OECD.stat.

(4) 재정위험을 식별할 수 있어요

-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해오던 우리나라의 부채통계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채무(D1)로써, 주로 재정운영과 관련한 한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 국가채무는 국가 간 비교가 불가능하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일반정부 부채통계 (D2)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 또한,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정적, 대외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일반정부 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공공부문에 대한 부채통계(D3)가 작성되었습니다.
- PSDS에 따른 부채통계는 부채를 다양한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여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해줍니다.
- 즉, 부채의 만기구조를 통해 유동성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통화정보를 이용하여 환율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동이자율 부채를 관리함으로써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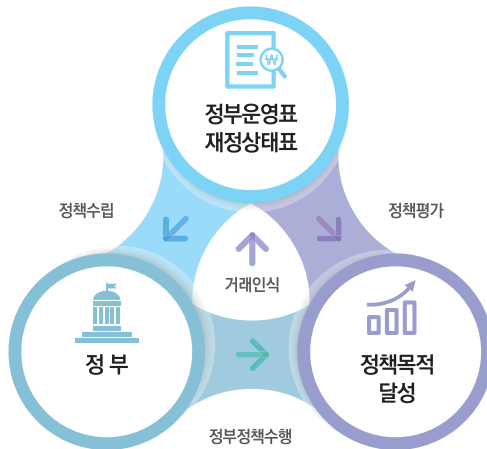
그림 1-9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재정위험을 식별할 수 있어요



(5) 정부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 재정정책은 대부분 여러 가지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일반정부 부문의 자산과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통해 재정정책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는 현금주의 재정통계와는 달리 국제기준에 따른 발생주의 GFS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거나 소멸될 때 이를 기록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거래가 집계되어 재정정책을 적시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발생주의 GFS는 경제적 사건을 적시에 반영한 유량과 저량의 결합을 통해 모든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림 1-10 재정통계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 정부의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어요



7. GFSM 2014에 대해 알고싶어요



(1) GFSM 2014 개정 배경은 무엇인가요?

- GFSM 2001 도입 이후 경제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 등으로 GFSM 2001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SNA 2008 등 국제통계지침 개정이 이루어졌고, IMF에서는 2015년 7월 GFSM 2014를 새롭게 마련하여 개정된 지침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2) GFSM 2014로 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 GFSM 2014는 다른 국제통계지침들과 차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산 및 부채범위를 확대하고 우발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분석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한 주요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4 GFSM 2014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정부범위	자산측면	부채측면	계정세분화	보고서
SNA 2008, ESA 2010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 제도단위 보완 - 사회보장성기금 구분표시	R&D, 무기체계 등 자산 인식대상의 확대	우발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및 표준화보증 부채인식	자산, 부채, 손익 항목의 계정별 세분화	주요 재무제표 추가 (통합변동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부기항목 추가



- 정부범위 등 불분명하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른 국제기준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였고,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중앙정부에 포함하였던 사회보장성기금을 일반정부의 하위 섹터로 별도 구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던 R&D(연구개발비)와 무기체계(전비품)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우발 부채 중 소액·다수로 발행되는 '표준화보증충당부채'에 한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여 보다 진보한 발생주의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정과목을 세분화하여 재정분석 및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밖에 주요 재무제표를 추가하고 우발부채와 저리용자 등에 대하여 부기하도록 하였습니다.

(3) 다른 나라의 도입 현황은 어떤가요?

- IMF GFS year book 2017에 따르면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의 경우 GFSM 2014를 완전히 도입하였고 뉴질랜드 등 12개 국가에서는 도입을 진행 중에 있거나 도입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등 EU의 20개국은 ESA 2010에 따른 재정통계를 GFSM 2014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 처음으로 GFSM 2001 기준의 재정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GFSM 2001의 안정적 자료 산출과 활용방안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후 GFSM 2014 도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 후에 국제동향에 맞추어 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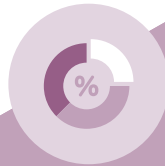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ART 2



⋮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PART 2

재정통계 작성대상 알아보기



1. GFS와 PSDS의 작성범위를 알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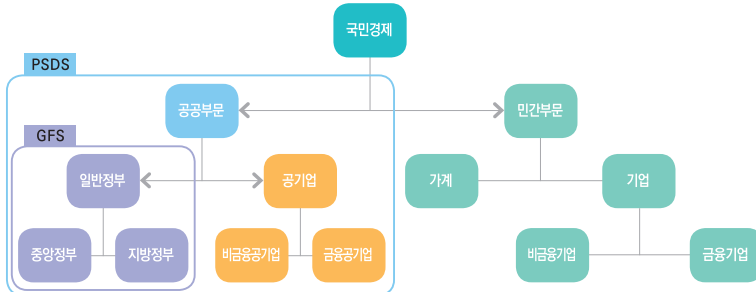
- GFSM 2001과 PSDS에서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성 범위를 포괄범위(Coverage)라고 합니다.
- 원칙적으로 GFSM 2001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체를 포괄합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은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일반정부로 분류하여 재정통계를 산출합니다.



국가간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를 비교할 때 정부범위는 대부분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또한 공기업의 경우 정부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공기업 부실이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PSDS에 따른 부채통계를 산출합니다.
-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정부단위의 정책효과 평가 및 국제비교에 주로 사용되며, 공공부문의 부채통계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사용됩니다.

그림 2-1 GFS 및 PSDS 포괄범위 비교



- GFSM 2001과 PSDS 기준에 따른 2017년의 포괄범위는 아래 표 2-1과 같습니다.

표 2-1 2017년 포괄범위

구 분	GFS	PSDS	
중앙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4개, 기업 특별회계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4개, 기업특별회계 4개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기금 58개, 금융성, 외평기금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기금 58개, 금융성, 외평기금 9개
	비영리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1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217개
지방	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832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4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832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직영공기업 특별회계 248개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대상 2,371개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대상 2,371개 전체
	비영리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 9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 97개
공기업	비금융공기업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공기업(중앙) 114개 비금융공기업(지방) 54개
	금융공기업	제외	제외

2.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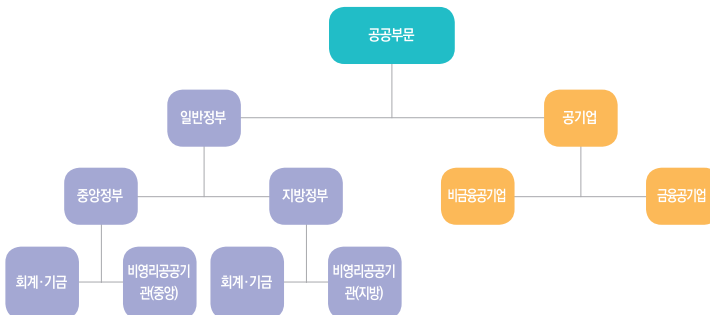
- 공공부문은 정부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기관들로 구성되며,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정부와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공공기관으로 구성됩니다.

비영리공공기관

비영리공공기관은 법률적으로 비정부 실체이지만, 정부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공기업은 정부가 지배하는 기관 중 재화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유익한 가격으로 생산하는 단위로 시장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공기업은 금융공기업과 비금융공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그림 2-2 공공부문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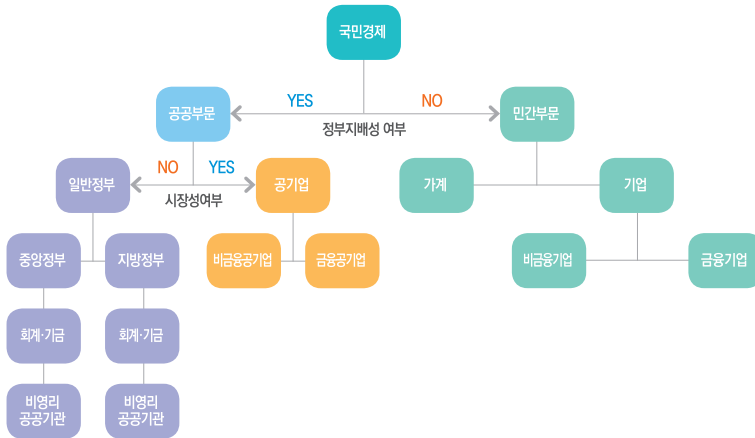


3. 포괄범위의 결정 절차



1단계	지배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부문으로 분류
2단계	시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관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기업,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반정부로 분류

그림 2-3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여부 판정 기준** : 원가보상률(판매액 / 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 비율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 GFS와 PSDS 작성 대상기관은 이러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합니다.

4. 정부범위 Q&A



Q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과 재정통계 산출범위인 공공기관은 일치하나요?



통계작성 목적과 공공기관 관리목적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운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관이라면 통계작성 범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KBS, EBS, 서울대학교 등이 재정통계 산출범위에 들어오므로 「공운법」상 공공기관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Q2

기업특별회계와 공공기관관리기금은 별도의 독립된 제도단위로 보아야 하나요?



GFSM 2001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처·청, 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정부를 구성하는 기관들은 독립된 제도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입법부가 통제하는 예산의 배정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는 기관들은 하나의 제도단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나 공공기관관리기금은 별도의 제도단위가 아닌 중앙정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Q3

구조조정기구나 사회보장기금을 무조건 일반정부로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조조정기구나 사회보장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며 정부단위에 의해서만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정부단위의 특별한 형태로 보아 시장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정부로 구분합니다.

Q4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할 때 금융공기업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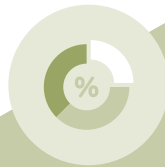
금융공기업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총부채 금액은 크지만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거나 음(-)의 값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공부문의 부채와는 성격이 상이하여 공공부문 부채 발표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호주, 캐나다, 일본, 멕시코에서만 금융공기업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ART 3



⋮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PART 3

재정통계 보고서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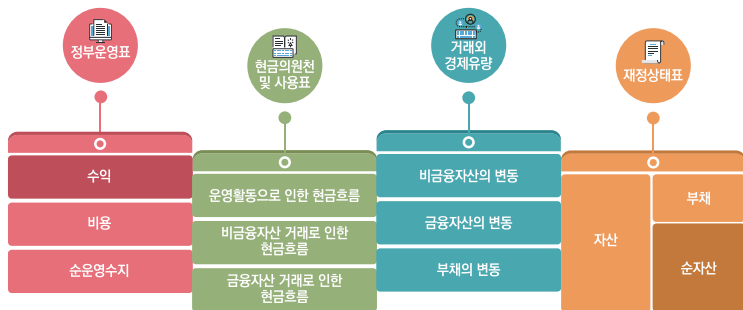


1. GFSM 2001 재무제표가 궁금해요

(1) GFSM 2001의 재무제표는 무엇인가요?

- GFSM 2001에 따라 산출하는 재무제표는 정부운영표와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거래외 경제유량표, 재정상태표를 들 수 있습니다.
- 정부운영표는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기업회계의 손익 계산서와 유사합니다.
-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현금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정부운영표로서 기업회계에서 직접법으로 작성되는 현금흐름표와 유사합니다.
- 거래외 경제유량표는 가격변동 또는 자연재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따른 가치 변동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 재정상태표는 일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의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유사합니다.

그림 3-1 GFS 재무제표



(2) 재무제표간의 관계를 알고 싶어요

- GFS 체계는 유량과 저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재정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모두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량과 저량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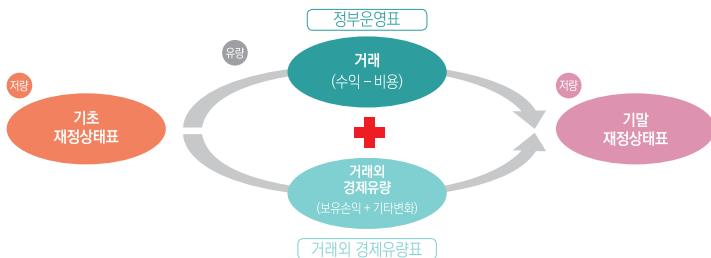
저량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이며 유량은 일정기간 동안 흐르는 양을 의미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소득은 일정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순생산물의 합이므로 유량 이라 할 수 있는 반면 국부(國富)는 특정 시점에서의 한 국가의 경제재의 총량이므로 저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간 초(저량)와 회계기간 말(저량) 사이에 나타난 재정상태의 변화를 설명 하기 위해서는 두 시점의 차이인 유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GFS 체계에서 유량은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두 가지 모두 자산과 부채의 저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유량 재무제표와 저량 재무제표의 연계

-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기말 저량(stock)에서 기초 저량(stock)을 차감한 변동분은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되는 유량(flow) 정보로 모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거래는 정부운영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외 경제유량은 거래외 경제유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2 유량과 저량의 관계



- 다음으로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거래

- 거래는 두 제도 단위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교환이나 이전의 형태로 나타 납니다.
- 수익과 비용은 순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며,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융자산의 순취득, 부채의 순부담과 같은 거래는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입니다.
- GFS 체계에서는 이러한 수익·비용만이 아니라 비금융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취득과 처분 등의 내역을 정부운영표에서 거래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3-1 자산과 부채의 거래 내역

구 분	거래 내역
비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물물교환·현물지급·이전·처분 ·기존 고정자산의 생산능력을 현저히 제고하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개조·재건축·확장
금융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물물교환·현물지급·이전·처분

3) 거래외 경제유량

- 거래외 경제유량은 보유손익과 기타내용변화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보유손익이란 평가 및 환산 등에 따른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분으로 투자증권 평가손익, 자산처분손익, 외화환산손익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기타내용변화는 거래 또는 보유손익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모든 가치변화로 재해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등이 대표적입니다.

(3) 정부운영표는 무엇인가요?

- 정부운영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정부의 운영결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GFS 보고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운영표상 각 계정이 어떻게 산출되어 표시되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2 예시

X6년 11월 10일 : 조세수익이 100 발생하였고 그 중 70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0은 미수금으로 계상함
 X6년 11월 30일 : 이자비용이 50 발생하였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
 X6년 11월 30일 : xx은행으로부터 20을 차입함
 X6년 12월 31일 : 비금융자산인 건물을 40에 구입하고 그 중 2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은 미지급금으로 계상

- 위의 표 3-2 예시를 정부운영표로 직접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3 정부운영표 예시

구 분	금 액	비 고
수익	100	조세수익 100
비용	(50)	이자비용 50
순운영수지	50	수익 100 - 비용 50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40)	건물 취득 40
순운전자(차입)	10	순운영수지 50 - 비금융자산의순취득 40
금융자산의 순취득	50	미수금 증가 30 + 현금 증가 20*
부채의 순발생	(40)	차입금 증가 20 + 미지급금 증가 20

현금증가 : 조세수익 70 - 이자비용 50 + 차입 20 - 건물구입 20 = 20

- 한 해의 운영결과인 순운영수지는 수익 100에서 비용 50을 차감하여 50으로 산출되고,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 40을 차감하면 순운전자 10이 산출됩니다.
- 예시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운영표를 통해 이용자들은 정부의 재정운영 결과를 파악하고 미래 재정위험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크게 다음의 주요 항목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표 3-4 정부운영표의 주요 항목

정부운영표	내역
순운영수지(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
비금융자산의 순취득(②)	•비금융자산의 연중 취득·처분·감가상각을 종합적으로 산출
순용자/순차입(③)	•순운영수지(①)-비금융자산의 순취득(②)으로 국제비교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정수지 지표임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④)	•금융자산과 부채의 운영 결과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과 부채의 순발생 부분으로 이루어짐

- 순운영수지에서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을 차감하면(①-②) 순용자(차입) 금액(③)이 산출되며, 이는 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과 부채의 순발생 금액의 차액(④)과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 만일 순운영수지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을 초과하여 양의 금액인 순용자(Net lending)가 발생한다면, 이는 초과 금액으로 금융자산을 취득(용자)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 앞에서 살펴본 예시에서 순운영수지 50에서 비금융자산에 40을 투자하고 남은 금액인 순용자 10은 금융자산과 부채의 거래 금액 10과 일치하게 됩니다. 즉 순용자가 10이라는 것은 재정운영결과 남은 자원으로 금융자산에 10을 투자하거나 부채를 10만큼 상환했다는 의미입니다.
- 반대로 순운영수지가 비금융자산의 순취득 금액에 미치지 못해 음의 금액인 순차입(Net borrowing)의 경우 재정운영결과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의 차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의미를 나타 냅니다.



(4)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무엇인가요?

-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는 현금주의로 작성되는 정부운영표라는 의미를 지니며, 유동성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현금의 유출입 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 표 3-2 예시를 통해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5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 예시

구 분	금 액	비 고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A)	20	조세수익 70 - 이자비용 50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수익	70	조세수익 70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지출	(50)	이자비용 50
비금융자산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B)	(20)	
비금융자산의 취득	20	건물 취득 20
비금융자산의 처분	-	
보전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	20	
현금이외의 금융자산 순취득	-	
부채의 순발생	20	은행 차입 20
현금의 순증감(A+B+C)	20	

- 각각의 활동별 금액을 산출해보면, 운영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 비금융자산 거래로 인한 현금흐름 △20, 부채의 순발생 20으로 산출되며 현금의 순증감은 20으로 산출됩니다.
- 현금의 순증감 20은 뒤에서 살펴볼 재정상태표상 기말 현금 50과 기초 현금 30의 차이금액 20과 일치합니다.
- 현금의 원천 및 사용표를 통해 GFSM 2001은 발생주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금 주의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거래외 경제유량표는 무엇인가요?

- 거래외 경제유량표는 한 회계기간 동안 정부의 거래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거래외 경제유량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정부운영표와 함께 자산·부채·순자산의 변동을 설명해주는 주요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거래외 경제유량은 시장가격변동이나 자연재해와 같이 정부정책에 따른 거래가 아닌 요인에 의한 변동으로 간단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3-6 거래외 경제유량 예시

X6년 12월 10일 : 보유중인 기계장치 20이 화재로 인해 소멸됨
 X6년 12월 31일 : 보유중인 채권의 기말 평가이익이 10 발생

- 위의 예시를 통해 거래외 경제유량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7 거래외 경제유량표 예시

구 분	거래외 경제유량	비 고
비금융자산	△20	
건물	-	
기계장치	△20	화재로 인한 재해손실 20
금융자산	10	
현금	-	
채권	10	채권평가이익 10
미수금	-	
자산총계	△10	
미지급금	-	
차입금	-	
부채총계	-	
순자산	△10	

- 금융자산인 채권의 변동액이 10으로 표시되고, 비금융자산인 기계장치의 변동액이 △20으로 표시되므로,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인해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10입니다.

(6) 재정상태표는 무엇인가요?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정부가 보유하는 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 정보 이용자들은 재정상태표의 자산을 통해 비금융자산의 운영 실태 및 금융 자산의 투자현황을 파악하고, 부채 정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 정보를 통해 정부 재정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표 3-2 예시와 표 3-6 예시를 통해 자산·부채·순자산이 재정상태표에서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8 재정상태표 예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전 기	당 기		전 기	당 기
비금융자산	30	50	미지급금	-	20
건물	10	50	차입금	40	60
기계장치	20	-	부채	40	80
금융자산	40	100			
현금	30	50			
채권	10	20			
미수금	-	30			
자산	70	150	순자산	30	70

- 예시에서 설명한 거래와 거래의 경제유량이 모두 반영된 기말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150, 부채는 80, 순자산은 70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7) 주요 재무제표의 연계 관계

- 기말 재정상태표는 기초 재정상태표에서 정부운영표의 거래내역과 거래외 경제유량 표의 거래외 경제유량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통합변동표는 이러한 산출과정을 보여주는 재무제표입니다.
- 표 3-2와 표 3-6의 예시를 통해 GFS 체계에 따라 유량과 저량의 결합과정을 보여주는 통합변동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9 재무제표 간 통합변동표 예시

구 분	전기 재정상태표	거 래	거래외 경제유량	당기 재정상태표
비금융자산	30	40	△20	50
건물	10	40	-	50
기계장치	20	-	△20	-
금융자산	40	50	10	100
현금	30	20	-	50
채권	10	-	10	20
미수금	-	30	-	30
자산총계	70	90	△10	150
미지급금	-	20	-	20
차입금	40	20	-	60
부채총계	40	40	-	80
순자산	30	50	△10	70

- 예시에서 보여준 경제적 변동사항이 거래와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되어 모두 반영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자산은 기초 순자산 30에서 순운영수지 50과 거래외 경제유량 △10을 합산한 70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기말 자산총계 150에서 부채 80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2. PSDS 재무제표가 궁금해요



(1)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

- 앞서 살펴본 보고서들은 GFSM 2001에 따라 산출되는 보고서들이며, 부채의 정보를 세분화하여 보여주는 PSDS의 대표적 보고서로는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와 세부표가 있습니다.
- 요약표가 총부채를 상품유형별, 만기별(원·잔존), 표시통화별(원화·외화) 등으로 구분한다면, 세부표는 요약표에서 구분한 부채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유형별로 구분한 부채 정보를 원 만기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원 만기는 장기였지만 1년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부채를 구분하여 보여주는 등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표 3-10의 예시를 통해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가 어떻게 세부항목별로 구분되어 표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 3-10 총부채 및 금융자산 예시

구분	과목	금액	이자율	만기	통화	거래처
자산	회사채	50	3%	2007. 01. 01.~2017. 12. 31	원화	AAA은행
	외화대여금	20	3ML+1.5%	2016. 01. 01 ~2021. 12. 31	달러	미국AA은행
		10	5%	2011. 01. 01 ~2021. 12. 31	달러	영국XY은행
부채	원화사채	40	CD+0.31%	2011. 01. 01 ~2021. 12. 31	원화	CCC은행
		60	3.5%	2011. 01. 01 ~2021. 12. 31	원화	AAA은행
	외화차입금	10	6ML+0.8%	2017. 01. 01 ~2017. 12. 31	엔화	일본BB은행
		40	4%	2017. 01. 01 ~2020. 12. 31	달러	미국YY투자

- PSDS에 따른 총부채를 먼저 상품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원화사채와 외화차입금은 각각 채무증권(부채) 100과 용자(부채) 50으로 분류되며, 금융자산인 회사채와 외화대여금은 각각 채무증권(자산) 50과 용자(자산) 30으로 분류하여 표시 됩니다.
- 채무상품의 이자율 유형, 만기, 통화, 거래처 정보를 통해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를 작성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3-11 총부채 및 순부채 요약표 예시

구 분	총부채 (a)	채무상환에 대응되는 금융자산(b)	순부채 (c)=(a)-(b)
총계	150	80	70
상품유형별	150	80	70
화폐용 금	-	-	-
특별인출권	-	-	-
현금 및 예금	-	-	-
채무증권	100	50	50
융자	50	30	20
보험·연금·표준화 보증상품	-	-	-
기타미지급/미수 계정	-	-	-
원만기별	150	80	70
단기	10	-	10
장기	140	80	60
잔존만기별	150	80	70
단기	10	50	△40
장기	140	30	110
표시 통화별	150	80	70
원화	100	50	50
외화	50	30	20
이자율 유형별	150	80	70
고정이자율	100	60	40
변동이자율	50	20	30
채권자 거주지별	150	80	70
국내채권자	100	50	50
국외채권자	50	30	20

- PSDS 부채통계를 분석할 때 총부채와 금융자산을 함께 고려하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표 3-11의 예시에서 잔존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단기부채가 10이며 이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은 50이므로 보유중인 금융자산으로 부채 10을 상환할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부채상환을 위해 단기자금조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부채의 유동성 관리목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또한 외화부채 50은 미래 만기 시점에 상환해야 할 50의 외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외화로 상환해야 하는 부채 금액이 클수록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예시에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듯이 PSDS 보고서는 부채의 정보를 상품유형별, 만기별, 표시 통화별, 이자율 유형별, 채권자 거주지별로 세분화하여 제공하며, 유동성 관리를 비롯한 재정건전성 분석 시 더욱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 3-12 채무상품 세부 정보 내역

구 분	내 역
상품유형별	•안정적인 자금 확보 수단 판단 가능
만기별	•유동성 위험 판단 가능
표시통화별	•환율변동에 따른 변동성 파악 가능
이자율 유형별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성 판단가능
채권자 거주지별	•대외 경제여건에 따른 위험도 추정 가능

- 또한, 총부채와 그에 대응되는 금융자산, 그리고 그 차이인 순부채를 각 유형별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 PSDS에서 정의하는 총부채는 GFS상 부채에서 주식 및 투자지분(부채), 파생금융 상품(부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채무상품 형태의 부채만 포함되는 것으로, GFS상 부채보다는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의 그림 3-3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채와 총부채

- 부채(Liabilities)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금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로, GFS상 부채 정의와 일치함
- 총부채(Debt Liabilities) : 미래 시점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 혹은 원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로, PSDS상 부채로 정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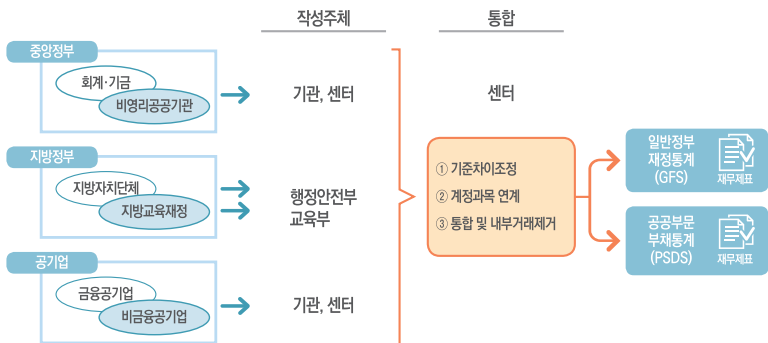
그림 3-3 부채(GFS)와 총부채(PSDS)



3.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과정이 궁금해요

- 재정통계 산출은 통계작성범위인 포괄범위를 결정하는 일부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지정되는 신규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장성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영리공공기관과 공기업으로 구분합니다.
- 중앙회계·기금은 국가회계기준의 결산보고서를 기반으로 GFS 기준으로 조정하여 통계를 산출하므로 국가결산이 완료되는 5월말부터 dBrain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업을 시작합니다.
- 지방정부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비영리공공기관, 지방비금융공기업의 재정통계 자료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통계는 교육부에서 취합하여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 송부하면, 센터에서는 취합된 자료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와의 내부거래를 제거합니다.
- 공공기관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통계 산출 공통양식인 '재정통계 작성 템플릿'을 배포하여 회수 및 검토하는 작업을 거쳐 개별기관의 재정통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의 재정통계가 확정되면 각 부문 별로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일반정부 재정통계(GFS)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 (PSDS)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림 3-4 재정통계 보고서 산출 과정



4. 재정통계 산출 Q&A



Q1

국가회계와 달리 GFS에서는 정부의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와 기말 저장 변동을 '거래'와 '거래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회계 계정 중 '거래외'로 분류되는 계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가회계기준과 GFSM 2001 기준의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름에 따라 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로 발생하는 손익은 국가회계에서는 수익 및 비용으로 인식하여 재정운영표에 표시하지만 GFSM에서는 수익 및 비용이 아닌 '거래외 경제유량'으로 구분합니다.

'보유손익' 계정으로는 일반유형자산처분손익, 장단기투자증권처분손익, 투자증권감액손실 및 감액손실환입, 보험차익, 외화평가손익, 외환차익 등이 있고 '기타내용변화' 계정으로는 자산폐기손실, 일반유형자산감액손실, 재해손실, 회계변경누적효과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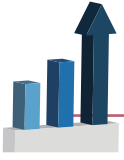
Q2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처럼 시장을 통해 매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통계 산출 시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하나요?



GFS에서는 정부 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는 모두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금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내부거래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도 내부거래로 제거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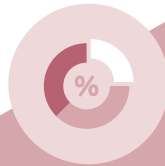
다만 국가채무(D1) 통계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부채가 포함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금액을 부기 표시하여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채 및 공채 규모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ART 4



...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PART 4

재정통계 주요 계정과목 찾아보기



01절 수익과 비용

1. 수익

- 수익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익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조세

- 조세수익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과세 기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표 4-1 조세의 세부내역

GFS 조세	조세항목
소득및이익세	• 소득세, 법인세 등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재화및용역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국제무역거래세	• 관세
기타조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인지세 등

(2) 사회보험료

-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납입하거나 피용자·자영업자가 자신을 위해 직접 납입하는 보험료 금액으로, 사회보장보험료와 기타사회보험료로 구분합니다.
- 사회보장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이 대표적이며, 기타사회보험료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3) 출연

- 출연은 다른 일반정부나 국제기구, 외국정부로부터 대가 없이 받는 수익입니다.
- 일반정부의 통합 과정에서 정부내 출연은 내부거래로 모두 제거되므로 정부운영표 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로부터의 출연만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내부거래 제거

GFS 작성대상인 일반정부 범위에 해당하는 실체끼리의 출연거래가 발생한 경우 내부거래 제거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금 50이 지급된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비용으로 50을 인식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수익으로 50을 인식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합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 중복계상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내부거래로 제거합니다.

(4) 기타수익

- 기타수익은 조세, 사회보험료, 출연을 제외한 수익계정으로 크게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표 4-2 기타수익의 세부내역

기타수익	내역
재산소득	• 재산 소유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배당, 지대가 대표적
재화와 용역의 판매수익	•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하는 수익
벌금, 과태료, 몰수금	• 법률 또는 행정규칙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출연이외의 자발적 이전	• 개인, 민간 비영리 기관, 비정부재단이나 기업 등 여타 일반정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출연을 제외한 금액
기타미분류수익	•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수입이 모두 포함

2. 비용



- 비용은 거래로 인한 순자산의 감소를 나타내며, 피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 사용, 고정자산소비, 이자, 보조, 출연, 사회급여, 기타비용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피용자보수

- 피용자보수는 노동의 제공 대가로서 피용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으로, 크게 다음의 금액으로 구분됩니다.



표 4-3 피용자보수의 세부내역

피용자보수	내역
급여 및 임금	• 피용자의 근무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들이 대표적
사회보험료	•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민연금비용, 건강보험비용, 고용보험비용 등이 대표적

(2) 재화와용역의 사용

- 재화와용역의 사용은 기업회계의 재료비와 용역비 등 제조원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일컫습니다.
- 대표적인 계정으로는 재료비, 외주용역비, 임차료, 각종 수수료, 각종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3) 고정자산소비

- 고정자산소비는 회계기간 동안의 마모, 정상적 진부화, 정상적 사고 손실로 나타난 고정자산의 가치하락 금액입니다.

- 감가상각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현재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금액이 산출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 감가상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 이자

- 이자는 사채, 차입금 등의 자금 사용에 따른 대가로 지급대상에 따라 비거주자, 일반정부 이외의 거주자, 일반정부에 대한 지급이자로 구분됩니다.

(5) 보조

- 보조는 정부가 생산자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무상의 지급액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보조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로 나누어집니다.

(6) 출연

- 출연은 지급하는 상대방에 따라 외국정부에 대한 출연,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여타일반 정부에 대한 출연으로 구분됩니다.
- 앞서 살펴본 출연수익과 동일하게 일반정부의 통합과정에서 정부내 출연금액은 내부거래로 제거되고,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만이 남게 됩니다.

(7) 사회급여

- 사회급여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실업급여, 국민연금 등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8)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이자 이외의 재산비용 및 배당과 같이 위의 항목으로 분류 될 수 없는 비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02절 자산과 부채

1. 자산과 부채의 정의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정부실체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거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 또는 물적 금전적 자원을 의미합니다.
-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미래에 특정실체가 다른 실체에게 자산을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로부터 발생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2. 비금융자산



- 비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자산으로 고정자산, 재고자산, 가치저장자산, 비생산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고정자산

- 고정자산은 생산과정에서 일 년 이상 반복적으로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생산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기업회계에서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과 그 구성이 유사합니다.



표 4-4 고정자산의 세부내역

고정자산	내역
건물과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 비주거용 건물, 기타 구조물로 구성 구조물에는 도로, 하수도, 공항, 철도, 항만 등 시설이 포함
기계 및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장비와 기타 기계 및 장비로 구성 건물 또는 기타 구조물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기계 및 장비는 건물 또는 구조물에 포함
기타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양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배양자산: 다른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일 년 이상 반복적 또는 연속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및 식물로 구성되며, 번식용 가축, 수확을 위해 재배되는 식물 등이 해당 무형고정자산: 광물탐사,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락·문학·예술적 창조물, 기타 무형 고정자산으로 구성되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를 일 년 이상 생산과정에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여야함

(2)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생산자가 판매할 목적 또는 생산과정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향후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화입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 양곡관리 특별회계 등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구입하여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저장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3) 가치저장자산

- 가치저장자산이란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재화로서 생산이나 소비에 사용되기 보다는 가치저장수단으로 보유하는 보석류나 예술작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 자연공원, 보호구역 등 정부가 역사적, 자연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는 유산자산이 해당됩니다.

(4) 비생산자산

- 비생산자산은 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토지, 무형비생산자산이 대표적입니다.
- 토지는 생산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므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무형비생산자산은 기업회계의 무형자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표 4-5 비생산자산의 세부내역

비생산자산	내역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땅 자체 뿐 아니라 땅을 덮고 있는 흙, 지표수, 그리고 토지와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대규모 개량시설이 포함
무형비생산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 비생산자산은 법적 또는 회계적 행위로 창출되는 사회적 형성물로 배타적 권리를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자산 • 특허권, 리스 및 기타계약, 구입된 영업권 등이 대표적

3. 금융자산 및 부채



- 금융자산은 토지·건물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대비되는 현금, 예금, 금융상품,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금융수단 상대방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국내자산 및 부채, 해외자산 및 부채로 구분합니다.
- 금융자산 및 부채의 경우 어느 금융수단이든 금융자산이자 동시에 부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수단에 대한 설명은 금융자산과 부채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회계기준과는 달리 GFSM 2001과 PSDS에서는 총당부채와 우발부채가 무조건적인 청구권이나 부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사건 또는 조건이 실제 발생할 때까지 금융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발부채란?

-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의무가 발생하여 재무성과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조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 국가회계에서는 ①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나 ②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를 우발 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GFSM 2001과 PSDS에서는 우발상황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기 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

- 화폐용 금은 순도 99.5% 이상의 금화와 금괴이며, 특별인출권은 IMF가 창출한 국제 준비자산으로 IMF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IMF로부터 융통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금과 특별인출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일반정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GFS 연차보고서상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은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 현금 및 예금

- 현금 및 예금은 기업 회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유사한 개념이며, 현금, 정기예적금, 단기금융상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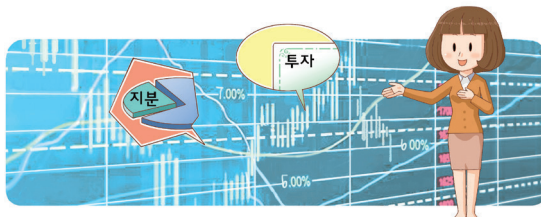
- 유가증권이란 금융청구권이 표시된 증서로,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은 이 중 주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 주식 이외의 유가증권에는 일반적으로 이자지급과 원금상환 일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공채, 어음, 채권, 양도가능 예금증서 등이 있습니다.

(4) 융자

- 융자자산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어할 때 인식되며, 융자부채는 반대의 경우 발생합니다.
- 융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외의 유가증권과는 달리 거의 유통되지 않으며, 각종 대여금(자산) 및 차입금(부채) 등이 해당됩니다.

(5) 주식 및 기타지분

- 주식 및 기타 지분은 주권에 대하여 주주가 가지는 권리나 자본금 등의 출자지분으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주식 및 기타지분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부채로 인식되며, 이는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기업회계와 차이를 보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각종 투자증권, 지분증권 등이 있습니다.



(6) 보험책임준비금

- 보험책임준비금은 보험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표 4-6 보험책임준비금

보험책임준비금	내역
연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	•연기금 및 생명보험에 대해 가입자가 보유한 자산 및 운영자가 부담하는 부채
비생명보험의 선납보험료	•보험 기간 동안 선납한 보험료
기존 청구권에 대한 준비금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청구권,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청구권에 대한 보험금 지출에 대비하여 비생명보험제도의 운영자가 보유하는 준비금

(7) 파생금융상품

- 파생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크게 선물 및 옵션 등이 해당됩니다.

(8) 기타미수/미지급계정

- 기타 미수/미지급 계정은 선급금, 미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 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자산 및 부채를 의미합니다.

4. 재정통계 작성 실체 간 회계기준 차이는 없나요?

- GFS와 PSDS는 일반정부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회계실체들을 통합하여 작성하는데 공공부문에 속하는 회계실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 서로 달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 차이는 크게 평가기준 차이와 인식범위 차이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재정통계 작성 시 회계기준 차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1) 평가기준 차이

- GFSM 2001 및 PSDS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해 시장가치(market prices)로 평가하며 각 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표 4-7 회계기준별 평가기준

구 분	국제통계기준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K-IFRS
	GFSM 2001	PSDS			
자산					
고정자산	상각후대체원가	해당없음	재평가, 취득원가	취득원가	재평가, 취득원가
채무증권	시장가치, 명목가치	시장가치, 명목가치	상각후취득원가*	취득원가	공정가치
지분증권	시장가치	시장가치	취득원가*	취득원가	공정가치
부채					
채무증권	시장가치, 명목가치	시장가치, 명목가치	발행가액	발행가액	최초측정 공정가치 후속측정 상각후원가
연금충당부채	보험수리적가정	보험수리적가정	보험수리적가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금추계액	퇴직금추계액	보험수리적가정

* 투자목적의 장·단기 투자증권의 경우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으로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

(2) 인식범위 차이

- 국제통계기준에서는 우발상황을 부채로 인식하지 않지만 회계기준에서는 발생이 확실하고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때 총당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산 및 부채의 인식범위로 인한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4-8 회계기준별 인식범위

구 분	국제통계기준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K-IFRS
	GFSM 2001	PSDS			
세입·세출외현금	인식	인식	미인식	인식	인식
유산자산*	인식	해당없음	미인식	미인식	해당없음
전비품	미인식	해당없음	인식	해당없음	해당없음
파생상품	인식	제외	인식	해당없음	인식
주식및기타지분	인식	제외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본으로 인식
연금총당부채	인식	인식	인식	해당없음	인식
총당부채	미인식	미인식	인식	인식	인식
연구개발비	비용인식	해당없음	비용인식, 요건충족시 자산인식	비용인식, 요건충족시 자산인식	비용인식, 요건충족시 자산인식

*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자산을 의미함. 국가회계에서는 이러한 유산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별도 정보로 공시하고 있음

5. 기준차이 조정 Q&A



Q1

공무원 및 군인의 연금충당부채는 재정통계에서도 부채로 보나요?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에서 연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GFSM 2001에서도 고용관계에 따른 직역연금의 경우 부채(보험·연금·표준화보증)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GFS year book에 따르면 아직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연금 충당부채를 부채에서 제외함에 따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도 연금충당부채의 재정통계 부채 인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연금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는 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정도입니다.

Q2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충당부채를 재정통계에서 부채로 인식하나요?



GFSM 2001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의 충당부채는 정책 환경에 따라 급여가 변화될 수 있어 급여수준이 불확실하고, 사회보장제도가 계약적 교환 거래가 아니므로 정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으므로 미래급여의 현재가치를 부기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회계기준에서 공무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부채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산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 논의 및 향후 추이를 보며 부기 표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Q3

국가회계에서처럼 재정통계에서도 세입·세출외현금(공탁금, 보관금, 입찰보증금 등)을 자산에서 제외하나요?



국가회계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산과 관계없이 국가가 보관하는 현금으로 국가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별도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FSM 2001에서는 일반정부의 법원 또는 세무서가 분쟁심리 중에 예치금을 보관할 수 있고 이러한 예치금을 부채로 인식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회계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인식합니다.

Q4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소송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등 충당부채를 재정통계에서도 부채로 보나요?



우발부채를 인식하는 재무회계와 달리 GFS에서는 관련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소송충당부채나 보증충당부채 등은 부채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구기관 등에서 미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준비금(고유목적사업준비금, 연구개발준비금 등)으로 계상한 부분도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Q5

‘표준화보증충당부채’도 다른 우발부채와 같이 부채로 보지 않나요?



표준화보증이란 유사한 성격의 소액용자에 대하여 대량으로 발행되는 수출신용보증, 학자금용자보증, 예금보증 등으로 확률·통계에 기반하여 평균손실을 추정할 수 있어 PSDS에서는 표준화보증에 한하여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보증내역에 대해서만 부기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표준화보증의 부채 포함여부는 국제추이를 지켜보며 반영할 예정입니다.

Q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이 보험지급에 대한 준비금으로 적합한 부분은 재정통계에서도 부채로 인정하나요?



국가회계에서는 사회보험사업에 대한 준비금을 기타부채로 인식하지만, 재정통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정부가 미래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 및 기타 급여 등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부기사항으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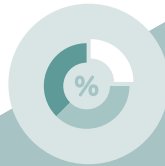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PART 5



⋮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PART 5

우리나라 재정통계 산출결과 분석하기



1. GFSM 2001 일반정부 재정통계는 얼마인가요?



(1) 정부운영표

- GFSM 2001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된 3개년 정부운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5-1 일반정부 3개년 정부운영표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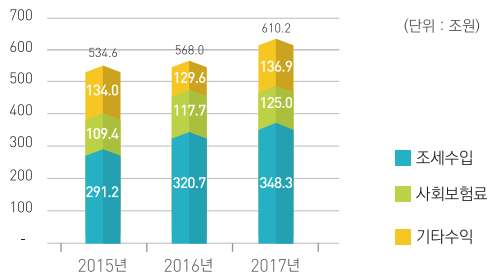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 총수입(A)	534.6	568.0	610.2
○ 조세	291.2	320.7	348.3
○ 사회보험료	109.4	117.7	125.0
○ 출연	0.0	0.0	0.0
○ 기타수익	134.0	129.6	136.9
□ 총지출* [(1)+(2)]	515.1	525.2	562.8
(1) 비용(B)*	470.2	482.9	516.9
○ 피용자 보수	94.9	99.6	105.3
○ 재화와용역의 사용	99.1	106.4	110.7
○ 고정자본소비	26.6	27.5	29.8
○ 이자	22.2	21.0	20.7
○ 보조	76.6	74.3	77.0
○ 출연	0.7	0.1	0.1
○ 사회급여	100.1	108.9	119.0
○ 기타비용	50.1	44.9	54.2
(2) 비금융자산순취득(C)*	44.9	42.3	45.9
□ 순운영수지(A-B)	64.4	85.1	93.3
□ 순융자/차입(A-B-C)	19.5	42.9	47.5

*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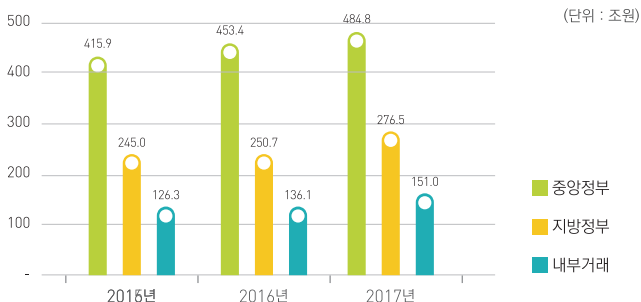
- 일반정부의 총수입을 구성하는 조세수입, 사회보험료, 출연, 기타수익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수입 규모에 대한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1 일반정부 총수입의 경제적 분류



-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총수입 중 절반이상을 조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전기 대비 각각 7.3조원, 6.8조원, 5.0조원 증가 및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 등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수익이 전기 대비 2.5조원 증가함에 따라 조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림 5-2 일반정부 총수입의 부문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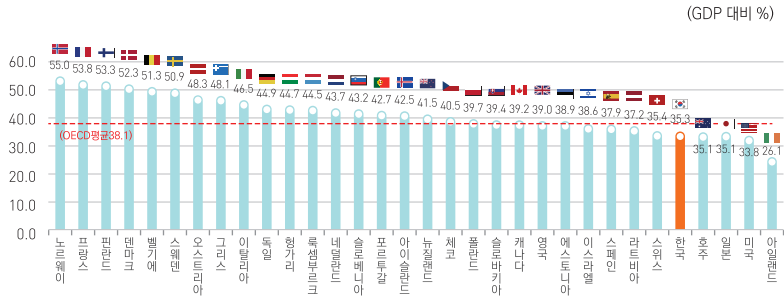


- 2017년 각 정부별 수입은 중앙정부 484.8조원, 지방정부 276.5조원, 내부거래 △151.0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2017회계연도 국가별 일반정부 총수입을 비교하면 그림 5-3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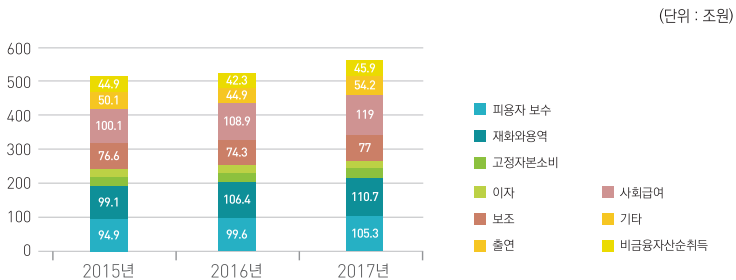
그림 5-3 2017년 일반정부 총수입의 국제비교



2) 총지출

- 일반정부의 총지출을 구성하는 항목의 비중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총지출 규모에 대한 산출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4 일반정부 총지출의 경제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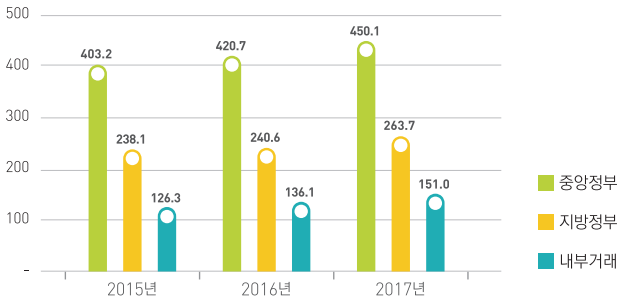


- 일반정부 총지출은 비용과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증감 내역을 분석해보면 비용자보수, 재화와용역의 사용, 사회급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2017년 각 정부별 총지출은 중앙정부 450.1조원, 지방정부 263.7조원, 내부거래 △151.0조원(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5-5 일반정부 총지출의 부문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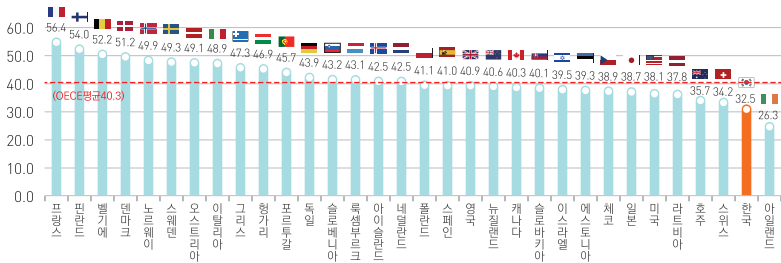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2017회계연도 국가별 일반정부 총지출을 비교하면 그림 5-6과 같습니다.

그림 5-6 2017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국제비교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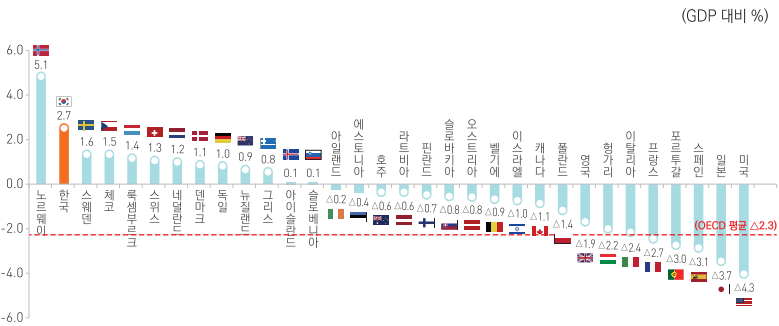
출처 : OECD.stat,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총지출



3) 재정수지

- 정부운영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재정수지는 순운영수지와 순용자/차입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국가간 재정수지 비교 시 주로 활용되는 지표는 순용자/차입으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47.5조원 흑자(GDP 대비 2.7%)를 나타내고 있으며, OECD 국가 대비 양호한 편입니다.

그림 5-7 주요 국가별 재정수지 비교



출처 : OECD.stat, 한국의 경우 GFSM 2001 기준의 재정수지

(2) 재정상태표

- GFSM 2001에 따라 작성된 3개년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표를 통해 각 연도별 자산과 부채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 5-2 일반정부 3개년 재정상태표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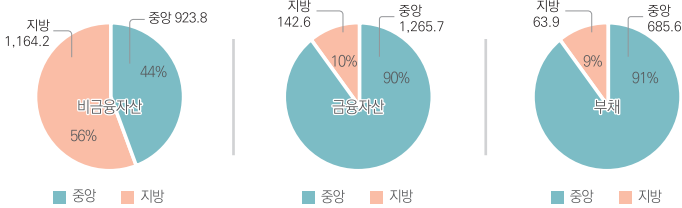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 자산	3,168.7	3,335.8	3,484.2
○ 비금융자산	1,965.4	2,036.5	2,088.0
고정자산	1,093.1	1,129.0	1,171.5
재고자산	15.0	15.3	16.3
비생산자산	857.2	892.2	900.2
○ 금융자산	1,203.3	1,299.3	1,396.2
현금및예금	216.2	232.3	231.6
채무증권	139.7	148.2	151.6
융자	162.9	167.5	175.7
주식및기타지분	506.1	566.5	647.3
파생금융상품	1.7	2.2	0.4
기타미수계정	176.6	182.6	189.6
□ 부채	677.3	718.9	737.4
현금및예금	-	-	-
채무증권	524.8	554.7	570.3
융자	93.5	100.2	103.5
주식및기타지분	0.4	0.4	0.4
보험책임준비금	0.0	0.0	-
파생금융상품	0.8	1.0	1.8
기타미지급계정	57.9	62.6	61.4



- 일반정부의 자산과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자산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 5-8 일반정부의 부문별 자산과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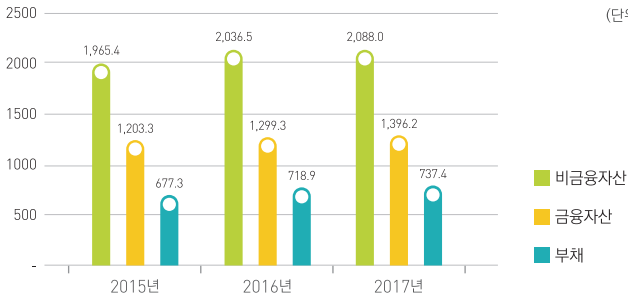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일반정부의 비금융자산은 총 2,088.0조원이며, 중앙정부 923.8조원, 지방정부가 1,164.2조원입니다.
- 일반정부의 금융자산은 총 1,396.2조원이며, 중앙정부 1,265.7조원, 지방정부가 142.6조원, 내부거래 △12.1조원입니다.
- 일반정부의 부채는 737.4조원이며, 중앙정부 685.6조원, 지방정부는 63.9조원, 내부거래 △12.1조원입니다. 상품유형별로는 채무증권(77.6%), 용자(14.0%), 기타미지급계정(8.1%)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림 5-9 일반정부 3개년 자산 부채 증감

(단위 : 조원)



- 금융자산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식및기타지분 및 채무증권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80.8조원(14.3%) 및 3.3조원(2.2%)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연금기금의 기금운용자산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부채는 채무증권인 국채가 증가하였고, 용자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청약 저축 증가 및 BTL 관련 미지급금, 학교 신설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증가가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 PSDS에 따른 우리나라의 부채 통계는 얼마인가요?



- 우리나라는 부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3가지로 구분해서 매년 부채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D1은 중앙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의 현금주의 채무금액이며, D2와 D3는 PSDS에 따라 발생주의로 산출되는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통계입니다.

우리나라 부채의 구분

- 국가채무(D1): GFSM 1986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되는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로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국가의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주요 재무정보로 활용됩니다.
- 일반정부 부채(D2): PSDS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로 국제기구 제출 및 국제 비교용으로 활용됩니다.
- 공공부문 부채(D3): PSDS 기준에 따른 공공부문 부채로 기존 일반정부부채(D2)에 비금융공기업부채까지 포함하여 산출하며,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목적으로 활용됩니다.

-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3개년 부채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5-3 우리나라 부채통계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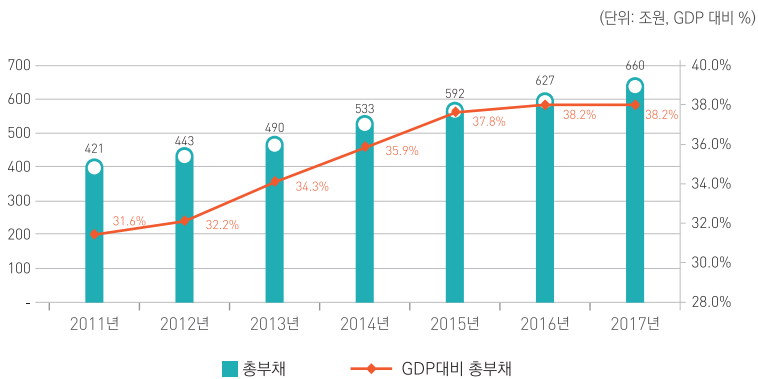
분 류	2015		2016		2017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금액	GDP대비
국가채무(D1)	591.5	37.8	626.9	38.2	660.2	38.2
일반정부 부채(D2)	676.2	43.2	717.5	43.7	735.2	42.5
공공부문 부채(D3)	1003.5	64.2	1036.6	63.1	1044.6	60.4

출처: 기획재정부,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 주요 내용」

(1) 국가채무(D1)

- 2017회계연도의 국가채무(D1)은 660조원으로 전년 대비 33조원(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 증가(29.8조원)에 주로 기인합니다.

그림 5-10 D1의 현황 및 추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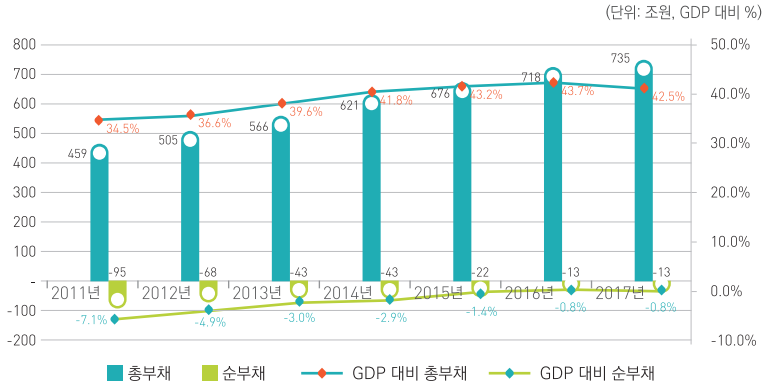
(2) 일반정부 부채(D2)

- 2017회계연도의 일반정부 부채(D2)는 735조원으로 전년대비 17조원(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고채 증가 이외에도 D2에서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공채 감소(3조원), 예금보험공사 부채감소(3조원), 지방정부 부채감소(3조원)에 따라 증가폭이 일부 상쇄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일반정부 부채(D2)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한 순부채*는 음(-)의 값을 보이므로 일반정부의 경우 부채보다 금융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국민연금기금 등 주로 사회보장성기금의 금융자산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 순부채(Net Debt Liabilities)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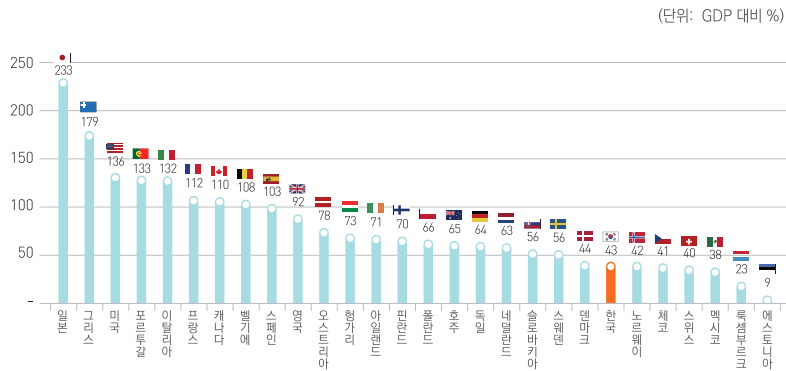


그림 5-11 D2의 현황 및 추세분석



-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 보면 OECD 국가들의 부채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2 D2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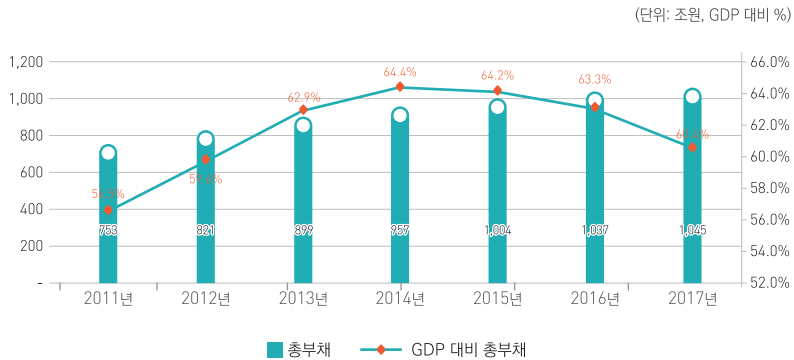


출처: OECD, Stat

(3) 공공부문 부채(D3) 분석

- 2017회계연도의 공공부문 부채(D3)는 1,045조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전년대비 0.8%)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 부채(D3)에서 비금융공기업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에 따른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감소 효과(LH △4.7조원, 가스공사 △1.3조원 등)가 국채 증가분을 상쇄하여 공공부문부채(D3)의 증가폭은 감소하였습니다.
- 또한 공공부문 부채(D3)의 GDP 대비 규모는 2015회계연도에 감소로 전환되었고, 2017회계연도에도 부채 감소세가 유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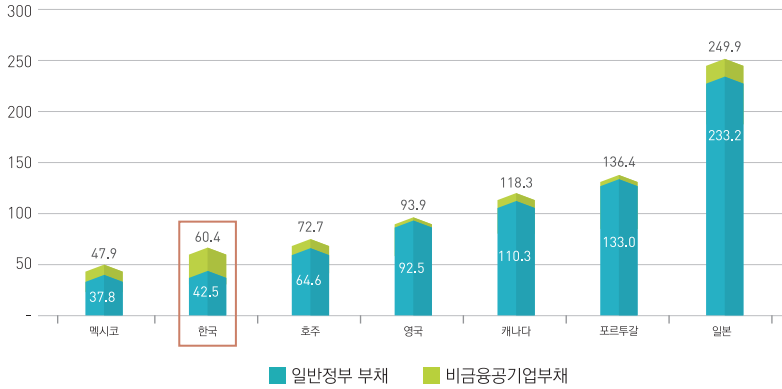
그림 5-13 D3의 현황 및 추세분석



-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는 OECD 7개 국가 중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2번째로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나,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그림 5-14 D3의 국제비교

(단위: GDP 대비 %)



주: 한국 이외 국가는 내부거래 제거 전 수치

출처: OECD, Stat

3. 부채 개념차이 Q&A



Q1

국가채무(D1)와 PSDS에서 공시하는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채무(D1)란 「국가재정법」제91조와 GFSM 1986에 근거한 채무로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가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합니다.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을 포함하여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재정법」상 중앙 정부 국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부문 부채(D3)란 PSDS에 근거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하는 부채로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부채를 의미합니다.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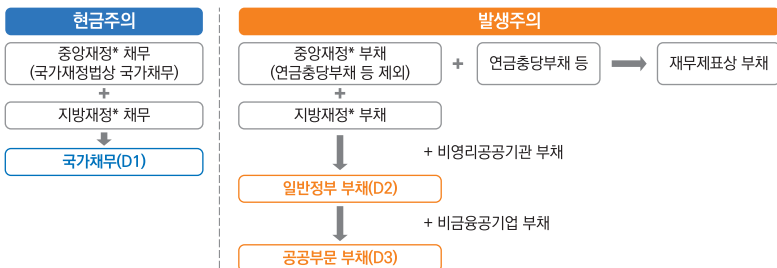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모두 PSDS 국제통계지침에 근거한 부채로 발생주의에 기반을 두지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괄한 부채로 우리나라는 2012년 12월에 처음으로 GFSM 2001 기준에 따른 2011 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부채란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부채로 공공부문의 재정건전성 관리에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월에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림 5-15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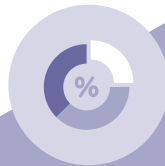
* 재정은 회계·기금을 의미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별첨



⋮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별첨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통계



1.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정부운영표

(단위 :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1.수익	484,775	223,859	67,521	△14,861	276,519	△151,050	610,244
1.1조세수입	266,063	82,206	-	-	82,206	-	348,269
1.2사회보험료	125,037	-	-	-	-	-	125,037
1.3출연	4,103	93,754	63,264	△14,861	142,157	△146,259	1
1.4기타수익	89,572	47,898	4,257	-	52,155	△4,791	136,936
2.비용	439,886	181,264	61,661	△14,861	228,064	△151,050	516,900
2.1피용자보수	45,303	29,084	30,913	-	59,997	-	105,300
2.2재화와용역의사용	61,136	51,314	3,028	-	54,342	△4,746	110,732
2.3고정자본소비	16,116	10,789	2,888	-	13,676	-	29,792
2.4이자	19,414	826	510	-	1,336	△45	20,705
2.5보조	17,219	51,090	8,708	-	59,798	-	77,017
2.6출연	142,277	16,722	2,259	△14,861	4,119	△146,259	137
2.7사회급여	118,985	1	-	-	1	-	118,986
2.8기타비용	19,436	21,438	13,356	-	34,794	-	54,231
총운영수지(1-2+2.3)	61,005	53,383	8,748	-	62,131	-	123,136
3.순운영수지(1-2)	44,889	42,595	5,860	-	48,455	-	93,344
3.1비금융자산의순취득	10,173	31,985	3,698	-	35,683	-	45,857
3.1.1고정자산	7,934	20,578	3,009	-	23,587	-	31,521
3.1.2재고자산	988	38	-	-	38	-	1,026
3.1.3가치저장자산	-	-	-	-	-	-	-
3.1.4비생산자산	1,251	11,368	690	-	12,058	-	13,309
순융자/순차입(1-2-3.1)	34,715	10,610	2,162	-	12,771	-	47,487
3.2금융자산의순취득	59,752	12,587	553	841	13,981	△1,599	72,134
3.3부채의순부담	25,036	1,977	△1,609	841	1,210	△1,599	24,647

2.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재정상태표



(단위 :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I. 비금융자산	923,804	1,073,066	91,136	-	1,164,202	-	2,088,007
1. 고정자산	438,265	672,475	60,718	-	733,193	-	1,171,457
1.1 건물및구조물	310,136	656,325	52,349	-	708,674	-	1,018,810
1.2 기계및장비	104,572	14,337	3,763	-	18,100	-	122,672
1.3 기타고정자산	23,557	1,813	4,605	-	6,419	-	29,976
2. 채고자산	11,543	4,793	-	-	4,793	-	16,336
3. 가치저장자산	-	-	-	-	-	-	-
4. 비생산자산	473,997	395,798	30,418	-	426,216	-	900,213
4.1 토지	472,225	395,216	30,416	-	425,632	-	897,857
4.2 지하자산	-	-	-	-	-	-	-
4.3 기타자연발생자산	-	-	-	-	-	-	-
4.4 무형비생산자산	1,772	582	2	-	584	-	2,356
II. 금융자산	1,265,683	132,917	10,427	△751	142,593	△12,105	1,396,172
1. 현금및예금	142,950	81,486	7,172	-	88,658	-	231,608
2. 주식이외의유가증권	154,132	30	-	-	30	△2,594	151,568
3. 용자	175,193	6,506	1,511	292	8,309	△7,813	175,690
4. 주식및기타지분	614,803	32,521	0	-	32,521	-	647,323
5. 파생금융상품	431	-	-	-	-	-	431
6. 기타미수계정	178,174	12,374	1,744	△1,043	13,076	△1,698	189,552
III. 부채	685,608	46,364	18,322	△751	63,935	△12,105	737,438
1. 주식이외의유가증권	554,035	18,886	-	-	18,886	△2,594	570,328
2. 용자	80,419	12,721	17,852	292	30,864	△7,813	103,471
3. 주식및기타지분	391	5	-	-	5	-	396
4. 파생금융상품	1,812	-	-	-	-	-	1,812
5. 기타미지급계정	48,951	14,752	470	△1,043	14,179	△1,698	61,432



3.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거래명세



(단위 :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I. 비금융자산	10,173	31,985	3,698	-	35,683	-	45,857
1. 고정자산	7,934	20,578	3,009	-	23,587	-	31,521
1.1 건물및구조물	792	18,267	2,141	-	20,407	-	21,200
1.2 기계및장비	6,575	492	326	-	818	-	7,394
1.3 기타고정자산	567	1,819	542	-	2,361	-	2,928
2. 재고자산	988	38	-	-	38	-	1,026
3. 가치저장자산	-	-	-	-	-	-	-
4. 비생산자산	1,251	11,368	690	-	12,058	-	13,309
4.1 토지	1,135	11,378	690	-	12,068	-	13,202
4.2 지하자산	-	-	-	-	-	-	-
4.3 기타자연발생자산	-	-	-	-	-	-	-
4.4 무형비생산자산	117	△10	0	-	△10	-	107
II. 금융자산	59,752	12,587	553	841	13,981	△1,599	72,134
1. 현금및예금	△411	11,339	950	-	12,289	-	11,878
2. 주식이외의유가증권	10,393	30	-	-	30	△816	9,607
3. 용자	8,619	356	△7	292	641	169	9,429
4. 주식및기타지분	40,859	1,423	-	-	1,423	-	42,282
5. 파생금융상품	△5,057	-	-	-	-	-	△5,057
6. 기타미수계정	5,349	△561	△390	549	△402	△952	3,995
III. 부채	25,036	1,977	△1,609	841	1,210	△1,599	24,647
1. 주식이외의유가증권	20,211	3,758	-	-	3,758	△816	23,152
2. 용자	6,573	△1,950	△1,551	292	△3,209	169	3,533
3. 주식및기타지분	△10	△10	-	-	△10	-	△20
4. 파생금융상품	△637	-	-	-	-	-	△637
5. 기타미지급계정	△1,101	180	△96	△425	1,168	△28	2,995

4. 2017회계연도 일반정부 거래의 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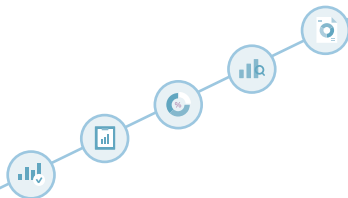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구분	중앙재정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I. 비금융자산	2,156	3,248	209	-	3,457	-	5,613
1. 고정자산	8,416	2,422	63	-	2,485	-	10,901
1.1 건물및구조물	7,997	1,834	49	-	1,883	-	9,879
1.2 기계및장비	△5,041	2,356	11	-	2,368	-	△2,673
1.3 기타고정자산	5,460	△1,769	3	-	△1,766	-	3,694
2. 재고자산	25	△63	-	-	△63	-	△38
3. 가치저장자산	-	-	-	-	-	-	-
4. 비생산자산	△6,285	889	146	-	1,035	-	△5,250
4.1 토지	△6,281	883	146	-	1,030	-	△5,251
4.2 지하자산	-	-	-	-	-	-	-
4.3 기타자연발생자산	-	-	-	-	-	-	-
4.4 무형비생산자산	△5	6	△0	-	5	-	1
II. 금융자산	26,479	△1,749	-	-	△1,749	-	24,730
1. 현금및예금	△10,324	△2,291	-	-	△2,291	-	△12,615
2. 주식이외의유가증권	△6,289	△0	-	-	△0	-	△6,289
3. 용자	△1,076	△118	-	-	△118	-	△1,194
4. 주식및기타지분	38,436	112	-	-	112	-	38,548
5. 파생금융상품	3,291	-	-	-	-	-	3,291
6. 기타미수계정	2,440	548	-	-	548	-	2,988
III. 부채	△2,065	△4,077	-	-	△4,077	-	△6,142
1. 주식이외의유가증권	△3,578	△3,915	-	-	△3,915	-	△7,493
2. 용자	△83	△197	-	-	△197	-	△280
3. 주식및기타지분	15	10	-	-	10	-	25
4. 파생금융상품	1,420	-	-	-	-	-	1,420
5. 기타미지급계정	162	26	-	-	26	-	187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참여연구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유영찬 공인회계사
유귀운 공인회계사
최지영 공인회계사
윤성호 전문연구원

발행일 2019년 5월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 화 (044)414-2114(대)

웹사이트 www.kipf.re.kr, gafsc.kipf.re.kr

디자인 기획 인쇄 경성문화사 044-868-3537



2019
알기 쉬운

재정통계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TEL | 044.414.2114 FAX | 044.414.2179
Website | www.kipf.re.kr